

2003년도 제 4기 정기총회 개최

》》사업실적확인서 및 경영상태확인서 발급업무 협회서 취급



2003년 정기총회에는 31개 회원사 중 23개 회원사 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우리 ESCO협회는 지난 3월 1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 4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02년 사업실적보고에 이어 200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어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정관변경 및 임원개선도 이루어졌다.

최석곤 회장은 “작년 한해는 협회가 업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담당해온 사업실적 확인서 발급업무와 입찰 참여를 위한 경영상태 확인서 발급업무를 협회에서 취급하고 있는 만큼 협회의 기능확대, 대외 업무역량 강화의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올해 협회는 내실을 다지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회원사 확충, 실무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협회 업무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ESCO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부기관과의 업무협약에 초기단계부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날 총회에서는 (주)세코의 장강돌 사장이 황태진 키트론 회장 대신 이사에, 임기만료된 이창순 감사직에는 김석철 한

국하니웰 팀장이 새로 선임되었다.

2003년 3월 현재 우리 ESCO협회의 정회원은 신규가입사인 토탈이엔에스(주)를 포함하여 26개사이며, 특별회원은 5개사이다.



최석곤 회장은 “비쁜 와중에도 성황을 이룬것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올 한해를 내실 있는 협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정회원사로 가입한 토달이엔에스(주) 이영강 교문의 인사 말씀도 있었다. 토달이엔에스는 전국의 쓰레기매립지를 대상으로 발전사업을 펼쳐나가는 회사이다.



경과보고를 하고 있는 장재연 사무국장



신임감사로 선임된 김석철 한국하니웰 ESCO팀장은 "협회 재정이 건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장강원 이사장은 "회사를 새롭게 새겨줄 수 있도록 협력을 행하게 되었다. 그는 ESCO사업의 발전에 대해 협회 회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석철 신자부 자원기술과 주무관은 협회 회원사에게 지원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창순 감사는 차세대 경영인 양성에 힘쓰는 공로를 훌륭히 수행해 참석자들이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고령군보육시설공회 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